

“책에도 불량품 적지 않다”

어떤 독자라도 한두번 쯤 모르고 ‘과본’을 구입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출판물의 결함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도 그럴 것이 책의 제작·유통과정에서 과본을 걸러내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인쇄물은 인쇄소서 제본소로 옮겨가 접지와 재단 등의 순서를 밟고, 완성된 책은 출판사에 바로 배달된다. 그리고 서점의 주문에 따라 출판사의 창고에서 서점의 매장으로 배달돼 독자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나 서점은 모든 책의 결함 여부를 가릴 시간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외형상 크게 과손된 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독자의 선별여부를 기다린다.

서점의 한 관계자는 “이제 과본율은 크게 우려

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쇄가 안된 백지가 끼어 있는 경우나 수험서에서 도형이나 그림이 잘못된 것, 제본에서 재단이 안돼 앞의 면과 뒷면이 붙은 책 등이 발견돼 독자들이 반품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같은 면이 반복되거나 빠진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물론 이렇게 확실한 과본은 전과 달리 지금은 극소수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책의 불량률은 여타 상품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인쇄·제본계의 기술난후를 원인으로 꼽는 반면, 그 편에서는 제작비엔 인쇄하고 조급하기만 한 출판계에 책임을 돌린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과본은 독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 한편 언뜻 눈에는 띄지 않지만 엄연한

과본이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원색화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책들의 경우 사진상태가 불량한 책은 아직도 많다. 먹자만 쓰이는 일반도서에서도 농담이 일정치 않은 인쇄상태를 보여주는 책들이 부지기수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이런 결합도 분명 과본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뿐 아니다. 심한 것은 한권의 책에 쓰인 종이의 종류와 색이 다른 것도 있다. 그 정도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생각이나 책이 내용이나 문제지 끝은 아무려면 어떠한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읽을 수 있는 상태만 되어도 다행이던 시대가 아니다. 책은 글자 하나에서도 눈을 떼지 않고 읽어야 본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섬세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작에도 당연히 주의해야 마땅하다. “책을 고를 때 안심이 안돼 10페이지 단위로 살펴보고 구입한다”는 한 독자의 목소리를 출판인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최태원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무서록」이란 제목처럼 서문이 없는 이태준의 이 수필집은 1941년에 초판이 나온 것으로 우리 현대 수필사에서 그 독보적 위치가 당당한 작품집. 당시 “시는 정지용이요, 소설은 이태준”이라 했을 정도로 비중있던 작가였으며 「문장강화」를 펴냈던 그가 월북작가로 구분된 뒤 우리 문학사에서 아직껏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서록」이 범우문고 중 한권으로 출판돼 눈길을 끈다. 초판본 57편 가운데 42편을 골라 수록한 이 책에서 책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 소개한다.

책

책만은 ‘책’보다 ‘冊’으로 쓰고 싶다. ‘책’보다 ‘冊’이 더 아름답고 더 책답다.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의복이나 주택이 보온만을 위한 세기는 벌써 아니다. 유희를 위해서도 이미 그렇거든 허물며 감정의, 정신의, 사상의 의복이요 주택인 책에 있어서라!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물질 이상인 것이 책이다. 한 표정 고운 소녀와 같이, 한 그윽한 눈매를 보이는 젊은 미망인처럼 매력

은 가지가지다. 신간란에서 새로 뽑을 수 있는 잉크냄새 새로운 것은, 소녀라고 해서 여저 다 그다지 신선하고 상냥스러우라! 고서점에서 먼지를 털고 거드랑 땀내 같은 것을 풍기는 것들은 자못 미망인다운 함축미인 것이다.

서점에서는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끄르고 전차에 올라 첫페이지를 읽어보는 맛, 전차길에 멀수록 복되다. 집에 갔다 한번 그들 사이에 던져버리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심히 박정한 주인이 된다.

가끔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적이 질투를 느낀다. 흔히는 첫번째페이지 밖에는 읽지 못하고 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에게 먼저 해버려 가지 때문이다.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한껏 피로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에 그 책에 대한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빌려나간 책은 영원히 ‘노라’가 되어버리는 것도 있다.

이러는 나도 남의 책을 가끔 빌려온다. 약속한 기간을 넘긴 것도 몇 권 있다. 그러기에 책은 빌리는 사

람도 도적이요 빌려주는 사람도 도적이란 서적논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일생에 천권을 빌려보고 999권을 돌려보내고 죽는다면 그는 최우등의 성적이다. 그러나 남은 한권 때문에 도적이요 도적이다. 책을 남에게 빌려만 주고 남의 것을 한권도 빌리지 않거나 천권에서 999권을 빌리는 자나 책에 있어서는 다 도적됨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책은 역시 빌려야 한다. 진리와 예술을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책은 물질 이상이다. 命嬢이나 귀부인을 초대할 듯 결코 땀이나 때가 묻은 손을 대어서는 실례다. 책은 세수는 할 줄 모르는 미인이다.

책에만은 나는 봉건적인 여성관이다. 너무 건강해선 무거워 안된다. 가볍고 알파카와 두경도 예전 菱華紙처럼 부드러운 한손에 맡아 쥐고 누워서도 읽기 좋기를 탐낸다. 그러나 덮어놓으면 떠들거리거나 구김살이 잡히지 않고 이내 고요해 제態로 돌아가는 忍從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할까.

歷史

요즘 ‘역사소설’이란 말이 있다. 펍 애매한 말로 가끔 작자와 사가들을 미로에 이끈다. 인물이거나 사건이거나 역사에 것을 소설화한 것이

역사소설임은 사실인데 소설화시키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소설은 사건에 보다 먼저 인물이 있다. 사건이란 인물에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역사에서 찾은 것은 먼저 인물이다. 역사를 소설체로 강의하자는 것이 소설이 아니다. 어떤 인물의 사생활을 찾아 읽기 좋은 전기를 쓰자는 것도 소설은 아니다. 소설은 오직 한 인물을 발굴해서 문헌이 착색해주는 대로 그 인물의 성격 하나를 포착할 뿐이다. (중략)

소설가는 역사의 해설자는 아니다. 영화가 문학의 삽화가 아닌 것을 깨닫고 순수한 映畫道에 진취하듯, 소설은 역사의 해설이 아닌 것을 소설가 자신은 물론 역사가, 독자, 모두 다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미 때늦은 잠꼬대다.

그러므로 역사소설이라도 소설일진대, 그 비평이 문예평론가의 영역에 있을 것이지 사가나 학자의 평론권 내에 던져질 바가 아닌 것이다. 최근에 역사소설이라 해서 사가나 학자의 입장에서 감연히 소설에 註筆을 휘두름을 본다. 우리는 그 자신의 회귀로 밖에 더 찬상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란 아름다운 인류의 강물이자, 좀더 정확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아름다운 기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출판저널

통권 제131호 / 1993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旻姬 金谷一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서울종로구 사간동
105-2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鏞廈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嬉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寅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 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내용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